

가정 예배 모범

- 2022_01_16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주의 이름 높이며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요한복음 5장 16- 29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하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22-23절)

▶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이 공경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자신의 삶을 맞추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 받았습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을 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 선한 일을 행한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각각 어떻게 부활합니까?(29절)

▶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가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우리를 공격하여도 생명의 부활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